

가정기기가 가사노동 수행과정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Household Technology on Housework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 아동학과

시간강사 金聖姬

교수 李基榮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Sung Hee, Kim

Professor : Ki Young, Lee

〈목 차〉

- | | |
|-----------------------------|----------------------|
| I. 서론 | V. 가사노동 만족감에 대한 효과 |
| II. 이론적 배경 | VI.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효과 |
| III. 연구범위와 자료 | VII. 주부의 계층통합에 대한 효과 |
| IV. 가사노동시간 및
노동절약에 대한 효과 | VIII.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technological deterministic debate that the development of household technology would decrease housework.

For the purpose, this study made use of all sorts of literature and the interview resources obtained from 86 housewives above 30 years old.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expected the household capital goods would save housework time and labor. The total time spent in housework and fatigue, however, seemed not much lessened during the diffusion period. Household capital goods were also expected to enhance the housework satisfaction and increase much housework participation of husband and children; yet, neither of them appeared much high during the diffusion period.

* 본 연구는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I. 서론

과학에 기초한 기술의 변화는 특히 생산영역에서 생산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 생산기술의 발달은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의 작업조건을 크게 변화시켰다. 따라서 산업노동 연구에서는 기술발전의 의미와 효과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시켜 오고있다.

가정내의 생산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주부의 작업조건을 개선시킨 가정기기도 1960년대에 과학기술이 실용화되고 대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산업노동에서와는 달리 가정기기가 노동에 미친 영향이나 효과를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국내에서 가정기기에 대한 논의는 소비상품의 일부로서 기기의 사용과 가사노동의 사회화, 상품대체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신경주, 1982; 이기영, 1987; 정연주·문숙재, 1987; 문숙재·정지영, 1991; 이정우·이은주, 1992 등).

가정기기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가족의 쾌적하고 다양한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켰다. 가족의 생활표준은 높아졌고 생활의 질은 향상되었다. 그리고 가정기기는 가사노동 과정을 간소화시켜 주부의 가사노동을 보다 편리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가정기기의 이러한 편익에 대한 인식은 가정기기를 '시간과 노력을 절감해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정기기의 효과는 일반인들이 기대하듯 편익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가정기기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기기의 시간 및 노동 절약 효과를 가정기기 도입 전후의 가사노동 과정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정기기 효과에 대한 논의가 시간 및 노동절약에만 집중되어온데 대해, 가사노동 분담과 가사노동 만족감, 주부의 계층과 같은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가정기기가 단순히 노동절약적, 시간절약적인 것으로서만 강조되는 시각에 다양성을

부여하리라고 본다. 특히 시간절약 효과에 대한 검토는 취업주부의 시간절약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리라고 본다.

II. 이론적 배경

과학기술의 발달은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노동 생산성과 생산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조순, 1977). 노동사회학, 산업사회학에서도 기계화, 자동화가 생산과정과 생산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왔다고 보는데는 이견이 없다.

블라우너(Blauner, 1964), 벨(Bell, 1973)은 기술결정론적 입장에서 기술발전은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진보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기술의 진보가 노동조건 향상에 기여하였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Schneider 외, 1982; Walker & Guest, 1952 등).

가사노동의 경우 기술은 대부분 기술결정론적 입장에서 가사노동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간제약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본재의 사용이 제시되는 것은 이러한 관점을 대표한다(Nickols & Fox, 1983; 이승미, 1989 등).

그러나 몇몇 연구는 기술의 도입이 노동조건 향상에 결정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바넥(Vanek, 1974)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적 설비가 증가한 1972년과 그렇지 않은 1966년 사이에 주부의 주당 가사노동 시간은 51시간과 55시간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계층에 따라서도 내구재의 소유 차이는 가사노동 시간 감소와 관련이 없었다(Vanek, 1978). 로빈슨(Robinson, 1980)은 1965년과 1975년의 가사노동 시간을 비교하여 가사노동 시간의 감소는 기술의 발달보다 가족구조의 변화나 여성취업의 증대, 생활표준의 유연성과 관련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브라이언트(Bryant, 1986)는 이처럼 가정에 도입된 기술이 가사노동 시간 절약에 큰 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은 노동빈도와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가정기기는 가사노동 시간 절약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취업과 내구재와의 관계에서도 취업여성은 비취업

여성보다 오히려 더 적은 설비를 갖고 있었다(Thrall, 1982). 스트로버와 와인버거(Strober & Weinberg, 1977), 포스터 외(Foster et al., 1981), 라일리(Reilly, 1982)의 연구에서는 다른 요소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주부의 취업과 시간절약 내구재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한편 오클리(Oakley, 1974)는 기기와 설비의 소유 차이가 가사노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보스 외(Bose et al., 1984)는 가정기술은 가사노동의 즐거움과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가사노동 분담과 관련해서는 스롤(Thrall, 1982)은 가정설비가 전통적 가족내 노동분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코완(Cowan, 1983)의 연구에서도 산업화에 의한 도구의 발달은 남성과 어린이의 가사노동을 감소시켰을 뿐 여성의 가사노동을 감소시키지 않은 것으로 논의되었다.

Ⅲ. 연구범위와 자료

1.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 가정기기는 현대 과학기술에 의해 대량생산된 것으로 가계에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면서 가족원의 최종소비를 위한 재화와 용역을 가정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정의한다. 따라서 가사노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계가 소유하지 않은 기기, 취업노동이나 여가생활에 많이 쓰이는 기기는 가정기기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가사노동은 본 연구가 문헌고찰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채택하므로 대부분의 연구에서와 같이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개별가계에서 행해지는 의·식·주 및 육아관련 활동으로 개념화한다.

2. 연구자료

가정기기 도입 전후의 가사노동 수행과정에 대한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각종 통계자료 등의 문헌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통계자료가 포착하지 못하는 측면은 면접자료로 보완하였다. 면접조사는 1995년 8월과 10월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 7명과 비조직적 면접을 실시하였고 2차 면접에서는 연령과 자녀수, 취업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지, 가정고용인 고용 여부를 고려하여 30-40대 주부 42명과 50-60대 주부 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접자료는 빈도와 비율로 경향을 살펴보고 χ^2 로 교차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¹⁾ 그리고 예시에 적합한 사례에 대해서는 면접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용구를 제시하였다.

Ⅳ. 가사노동 시간 및 노동절약에 대한 효과

1. 시간절약 효과

가정기기는 노동과정을 간소화시키고 주부의 노동을 대체하므로 무엇보다도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을 크게 절약시켜주는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특정 노동과정에서 가정기기는 노동시간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식기세척기의 경우 이를 사용할 때는 설거지에 주당 4.9시간이 들지만 사용하지 않는 때는 6.3시간이 든다(Hall & Schroeder, 1970). 그러나 총 가사노동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 가정기기의 보급은 노동 시간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 현대 과학기술의 실용화에 의해 대량생산된 가정기기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들어서이다. 이후 1980년대를 거치면서 보급이 확대

1) 임갈통(Galtung, 1967)은 어떤 특정 가설이 자료로서 확증되는지 안되는지와 일반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다르다고 보아 실질적 가설과 일반화 가설을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가설검증에 있어서 40명의 표본은 완전히 인정할 수 있는 크기가 된다. 이런 근거로부터 오클리(Oakley, 1974)는 40명의 면접표본에 대해 χ^2 검증으로 유의도를 조사하였다.

되어 1990년대에는 대부분의 가정이 많은 가정기기를 보유하였다. 세탁기의 경우 1970년 전국 보급율은 1.0%였지만(통계청, 1975), 1993년에는 보급율이 91%(한국전력공사, 1994)에 이르렀다. 냉장고는 1970년에 전국 가구의 2.1%만이 보유하였지만(통계청, 1970), 1993년에는 108%가 이를 보유하였다(한국전력공사, 1994). 그러나 1970년대와 199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주부의 총 가사노동 시간은 1975년(윤복자) 8.4시간, 1980년(임정빈) 11.8시간, 1987년(이정우 외) 8.54시간, 1990년(임정빈·임혜경) 8.6시간, 1993년(이기영 외) 8.33시간으로 큰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²⁾

가정기기의 시간절약에 대한 효과는 시간제약이 많은 취업주부의 가정기기 소유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1994년(이기영 외)의 조사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평일 가사노동 시간은 8시간 20분인데 비해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3시간 28분으로 4시간 52분의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에 비해 더 적은 가사노동 시간을 보낸 것은 시간절약적 가정기기의 보유에 따른 차이로 보이게 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가정기기의 보유는 여성의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다. 이용학(1985)의 조사에서 중·고소득층의 취업주부는 비취업주부보다 오히려 가정기기 소유가 더 적었다. 이승미(1989)의 조사에서도 같은 소득 집단내에서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모두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보다 가정기기를 더 적게 보유하였다. 그리고 문숙재·이재희(1983)의 조사와 이정우·이정숙(1986)의 연구에서도 가정기기의 보유는 주부의 직업유무와 관계가 없었다. 취업주부는 시간제약 전략으로 가정기기를 사용하기보다 여가나 수면시간과 같은 노동력재생산 시간을 감소시키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이승미, 1989; 조성근·문숙재, 1991).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가정기기 보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정기기가 가사노동시간 절약에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가정기기의 도입은 가정기기와 관련된 작업에서 몇 가지 활동을 제거하기도 했지만 다른 일들을 부가시키기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생활영역별 가사노동 시간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선희(1989)의 분석에 의하면 1968년과 1987년 사이에 의생활에서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였지만, 식생활과 주생활에서 가사노동 시간은 일관된 변화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가족관리 시간과 경영 및 장보기 시간은 1980년대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임정빈·임혜경(1992)의 1980년과 1990년의 생활시간 비교에서는 의·식·주생활과 관련된 가사노동 시간은 약간의 감소를 보였지만 장보기와 가족돌보기 시간은 증가하였다. 대체로 생활 영역별로 볼 때 의생활에서는 가사노동이 감소하였고 쇼핑, 가족돌보기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가사노동이 증가하였다.

또한 가정기기는 가정고용인에게 위임하였던 일과 시장상품으로 대체하였던 일을 주부의 가사노동으로 회귀시키기도 하였다. 세탁기는 특히 가정고용인에게 위임했던 일을 주부에게로 귀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세탁기가 보급되기 전인 1968년 김분옥·장명옥 조사에 의하면 서울 주부의 59%가 가정고용인을 고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탁기 보유율(한국전력공사, 1992)이 전국 80%를 넘는 1992년(이정우·이은주)에는 서울 주부의 13.1%만이 가정고용인을 고용하고 있었다. 전기다리미와 제빵기, 참기름제조기, 요구르트 제조기 등의 기기들은 시장상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일과 대체되었던 일들을 다시 가사노동으로 회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소득수준 향상으로 높아지는 생활표준, 이로 인한 가족의 요구 증가도 가사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청결에 대한 표준 증가는 청소

- 2) 윤복자(1975) : 서울시 주부 171명 조사분석. 평일·주말 비분류
 이정우·최보가·최명숙(1987) : 대구시의 주부 300명 조사.
 임정빈(1981) : 서울시 주부 261명 조사분석.
 임정빈·임혜경(1992) : 서울시 주부 550명 조사
 이기영·김희숙·서창원·이승미(1994) : 수도권 거주자 유자녀부부 400쌍 조사.

와 세탁빈도를 증가시켰고 쾌적한 의생활에 대한 표준 증가는 천연섬유의 다림질 빈도와 양을 증가시켰다. 노인 면접자에 따르면 빨래는 여름에는 대체로 2-3일에 1회, 겨울에는 1주일에 1회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세탁기가 보급된 오늘날의 세탁빈도는 세탁기의 월 사용빈도로 볼 경우 15·6회로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증가하였다(한국전력공사, 1994). 천연섬유의 1인당 소비량은 1966년과 1989년 사이에 2.3kg에서 6.5kg로 3배 증가하였고(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90), 월 평균 다리미 사용횟수는 1989년 8회에서 1993년 10.2회로 계속 증가하였다(한국전력공사, 각 년도). 이외에 기기의 관라 및 유지는 새로운 가사노동의 부가를 요구하므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구입되는 가정기기들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제거하기보다 확대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가정기기의 낮은 사용율도 가정기기의 시간절약적 효과를 모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대화된 전기제품과 이에 대응하는 재래식 비전기제품의 이용율을 조사한 신경주(1985)의 연구에 의하면 전기제품을 소유한 경우에도 비전기제품의 사용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이정우·이정숙(1986)의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소형 전기기구의 사용빈도는 매우 낮았다.

이처럼 전기기구의 사용율이 낮은 것은 비싼 전기요금과 같은 경제적 이유 또는 꺼냈다 넣었다하는 번거로움과 같은 습관적인 이유 때문이었다(신경주, 1985. 이정우·이정숙, 1986). 가정기기 사용상의 제약은 다음과 같은 식기세척기 사용자와의 면접결과에서 잘 나타난다. K씨는 “처음에는 구정물에 손을 담그는 일에서 해방되고 시간이 절약되는 것 같고 허리와 다리도 아프지 않아서 자주 썼다. 그러나 차츰 그릇교체가 귀찮아지고 물낭비도 심하고 전기요금도 많이 드는 것 같아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외에 주거공간, 손맛과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도 가정기기 사용을 제한하였다. 사회계층에 따른 세탁기 사용도를 보면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목욕탕시설이 부족하여 마루에 세탁기를 두므로 사용빈도가 낮았다(김영란, 1988). 면접조사에서는 거의

모든 연령 계층의 주부들이 기계로 가사를 수행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것이 더 정성스러우며 결과면에서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정기기의 시간절약 효과는 새로운 가사노동의 부가, 가족의 욕구 증가 뿐 아니라 사용상의 제약으로 인해 더욱 모호졌다고 볼 수 있다.

2. 노동절약 효과

가정기기의 사용에 따른 에너지소모의 변화에 관한 직접적인 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유사한 수행방식과 기구 사용에 따른 에너지소모 조사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세탁기 사용에 의한 에너지 절약은 손으로 탈수하는 것과 기계로 탈수하는 것의 에너지소모 조사를 통해 대략적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슈바르츠(Swartz, 1933)에 의하면 이 두 방법에서 휴식과 비교한 에너지 소모 비율은 191.0%에서 99.0%로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세탁기로 빨래를 할 경우 탈수과정 뿐 아니라 비비고 문지르는 과정도 생략시켜주므로 손세탁보다 2배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시킨다고 볼 수 있다.

가정기기는 가사작업 과정에서 힘든 과정을 소멸시켜 작업자의 에너지소모를 크게 경감시켜 주었다. 이러한 효과는 노인 면접자들이 “지금 사람들은 아주 호강하고 있지. 옛날 사람들은 불쌍했어.” 또는 “요즘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을 중노동이나 하는 것처럼 불평불만이 많다”고 비난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편리한 가정기기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대 주부들의 2/3 이상이 만성피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최덕경·이정우, 1993). 면접에 따르면 특히 취업주부의 경우, 30-40대의 취업주부는 50-60대의 노인세대가 비슷한 나이에 취업주부였을 때와 피곤도에 별 차이가 없었다(표 1). 가정기기의 보유로 가사노동에 들이는 에너지 소모와 피로감이 어느 정도 감소되기는 하였지만 그 정도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노동절약적 가정기기가 증가하였음에도 신체적 소모감이나 피로감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피로요소가 유발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가정기기는 여러가지 일을 주부가 혼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하므로 집중력에 대한 부담감을 높여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 게다가 기기도입으로 인한 특정근육의 무력화나 몸에 맞지 않는 규격화된 기기의 사용은 신체적으로 또 다른 피로를 초래할 수 있다.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에서 여성의 수진율이 남성보다 1988년 1.6배, 1990년 1.7배나 높은 것은 노동과정에서의 문제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보건사회부, 1989, 1991).

〈표 1〉 주부의 피곤도 변화

‘평소 가사노동을 하면서 피곤함을 느끼(있)는지’에 대한 응답	전업주부		취업주부	
	30-40대 명(%)	50-60대 명(%)	30-40대 명(%)	50-60대 명(%)
응답자				
자주 느낌	10 (37)	15(79)	9(60)	9 (53)
가끔 느낌	16 (59)	2(11)	6(40)	5 (29)
거의 느끼지 않음	1 (4)	2(10)	• (0)	3 (18)
합 계	27(100)	19(100)	15(100)	17(100)

* 5·60대 주부에게는 35세 무렵 피곤을 어느정도 느꼈는지를 질문함

전업주부: $X^2=11.92$; d.f.=2; $P<.01$

V. 가사노동 만족감에 대한 효과

기술의 변화는 노동과정을 용이하게 하므로 작업자의 작업만족감을 증가시켜주는 것으로도 기대되기도 한다. 가정기기는 특히 전업주부의 노동 환경을 산업노동의 작업조건과 유사하게 만들어 주므로 가사노동을 도전적인 일로 보이게 하여 주부의 가사노동 만족감을 증가시켜 줄 수 있다. 그러나 조사연구에 따르면 가정기기가 가사노동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와는 달리 크지 않았다. 서창원·이기영(1983)의 조사에서 작업조건은 가사노동 만족도와 의미있는 관계가 없었다. 지순 외(1987)의 연구에서 주부의 소진(消盡)상태는 가사노동 환경이 좋을 때 더 심하였다.

오늘날의 주부들은 대체로 편리한 가정기기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가사노동에 만족하지 않는다(김외숙, 1981; 서창원, 1983; 박인경·이정우, 1986; 안옥희·박인전, 1993). 그러나 예전의 주부들은 편리한 가정기기 소유가 적었음에도 가사노동에 더 만족하였던 것 같다. 면접조사에서 ‘평소 가사노동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30-40대 주부들은 비교적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50-60대 주부들은 과거에 가사노동을 비교적 좋아한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2).

〈표 2〉 가사노동 만족감의 변화

‘평소 가사노동을 하면서 좋아하(있)는지’에 대한 응답	30-40대 명(%)	50-60대 명(%)
매우 좋아함	3 (7)	8(22)
약간 좋아함	18(43)	20(56)
좋아하지 않음	21(50)	8(22)
합 계	42(100)	36(100)

* 5·60대 주부에게는 35세 무렵 가사노동을 어느정도 좋아했는지 질문.

$X^2=7.79$; d.f.=2; $P<.05$

가사노동에 대해 면접노인들은 “해야하는 일이나, 내 자식, 내 식구의 일이나니까 불만이 없었다.”, “시집가면 죽어도 일을 해야 하니까, 자식 크는 재미로 내 생활이니까, 그냥 일하고 살았다.”고 별 불만이 없었음을 토로했다. 그러나 30대의 젊은 면접자들은 ‘늘 같은 일이라 지치고 성취감도 없다’, ‘하는 일이나 시간에 비해 표가 나지 않고 힘만 든다’, ‘가족들의 인정을 못받는다’고 불만족을 표시하였다. 오늘날의 주부들은 가정기기의 보급으로 편해진 면도 있지만 주부역할에 대한 정체감 상실로 가사노동 만족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가정기기는 주부역할에 대한 상실감을 상회할만큼 가사노동 만족감을 증가시키지도 않았지만 단조로움을 증가시켜 주부의 가사노동 만족감을 감소시키기도 했다. 주부들이 장보기, 정원손질을 좋아하고 설 것이, 다림질을 싫어하는 것은(김외숙,1981) 가정기

기 대체가 불가능한 작업보다 가정기기에 의한 대체가 많은 단조로운 일을 덜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가정기기는 주부를 개별 가정에 고립시켜 노동에 대한 불만족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정영금(1993)조사에서 소외감은 주부로서의 나쁜 점으로 꼽혔다. 가정기기가 도입되기 전 대부분의 여성들은 세탁, 숯다림질, 다듬이질, 방아질과 같은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가족원 또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했다. 다른 사람과의 협업은 타율과 강제성을 유발하기도 하였겠지만 우정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즐거운 기회를 제공하였다. 가정기기와 더불어 고립된 채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주부들은 공동작업의 감소에서 오는 제한된 상호작용으로 가사노동에 불만족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면접노인 중 농촌출신의 LS씨, K씨, P씨, B씨는 이웃과의 공동작업이 감소하여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결국 가정기기는 주부의 역할 상실을 보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단조로움, 고립감과 같은 불만족 요소를 증가시켜 가사노동 만족감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VI.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효과

가정기기의 도입은 남편 및 자녀의 가사참여를 유도하여 가사공유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였다. 가전제품의 광고들은 주부를 대신해서 남편과 자녀가 세탁기를 사용하고 청소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조사에서 가정기기의 보급과 더불어 남편의 가사참여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1975년(윤복자) 조사에 의하면 전업주부 남편들은 평일 0.6시간, 취업주부 남편은 0.5시간 가사노동에 참여하였다.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주부의 취업에 관계없이 30분 정도였다. 1994년(이기영 외)의 조사에서도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 시간은 전업주부의 남편인 경우는 20분, 취업주부의 남편인 경우 21분으로 주부취업에 관계없이 20분 정도였다. 남편의 가사참여는 주부의 취업여부에 관계가 없었을 뿐 아니라 가정기기가 확대되는 기간동안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취업주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면접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현재 30-40대 취업주부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는 과거 20여년전 취업주부 남편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한 것과 비교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표 3). 세탁기의 보급 증가로 세탁참여가 용이해졌음에도 세탁에서의 취업주부 남편의 참여는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림질 역시 20-30년 전과 비교해 참여에 큰 차이가 없었다. 가정기기의 보급이 가장 늦은 방청소에서는 남편의 참여가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지만 난방관리면에서는 편리한 보일러시설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처럼 취업주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가 가정기기의 보급에 따라 큰 증가를 보이지 않는 것은 가정기기가 전통적 역할 배분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편 뿐 아니라 자녀의 가사참여도 가정기기의 보급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딸의 가사노동 참여는 가정기기의 보급 이후에 감소하였다. 면접조사에 의하면 현재 30-40대의 10-15세의 딸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현재 50-60대가 10세-15세였을 무렵 가사노동에 참여했던 정도보다 훨씬 낮다(표 4). 면접 노인 C씨와 LB씨의 경우 어릴 때부터 물동이를 이고 다녔고 빨래를 했다고 했다. 또한 C씨와 P씨는 바느질을 일곱·여덟살부터 배웠다고 했다.

이처럼 딸의 가사노동 참여가 감소한 것은 가사노동을 대체해주는 소비상품이 등장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여성의 교육기회와 수준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여성의 교육수준을 보면 1970년 4.72년에서 1980년 6.63년 1990년 8.22년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1993).

이러한 교육수준의 증가와 더불어 주부의 역할 강화도 딸을 가사노동으로부터 배제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면접조사에서 딸이 가사노동 참여를 하지 않는 이유로 공부외에 '주부의 일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크면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각자의 할 일이 있으므로'라는 응답은 가사노동이 주부의 일이라는 고정된 관념에서

〈표 3〉 취업주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변화

응답자	세 탁		다 립 질		방 청 소		난 방 관 리	
	30-40대 명(%)	50-60대 명(%)	30-40대 명(%)	50-60대 명(%)	30-40대 명(%)	50-60대 명(%)	30-40대 명(%)	50-60대 명(%)
거의 하지않음	13(87)	17(100)	14(93)	14(82)	4(31)	15(88)	7(50)	8(47)
가끔함	2(13)	.	1 (7)	3(18)	6(46)	1(11)	4(29)	7(41)
자주함	3(33)	1(11)	3(21)	2(22)
계	15(100)	17(100)	15(100)	17(100)	13(100)	17(100)	14(100)	17(100)

방청소: $X^2=12.87$; d.f.=3; $P<.01$

* 50-60대의 경우, 35세 무렵 취업주부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당시 남편의 참여도를 질문

* 30-40대 합계의 차이는 관련기기가 있는 경우만 조사한데서 오는 차이임.

〈표 4〉 현재 30-40대의 딸과 50-60대의 어린시절의 가사노동 참여 비교

응답자	세 탁		다 립 질		방 청 소	
	30-40대 명(%)	50-60대 명(%)	30-40대 명(%)	50-60대 명(%)	30-40대 명(%)	50-60대 명(%)
거의 없음	23(85)	10(28)	25(93)	7(19)	5(19)	19(53)
가끔함	3(11)	16(45)	2(7)	16(45)	18(67)	16(45)
자주함	1(4)	10(27)	.	13(26)	4(14)	1(2)
합 계	27(100)	36(100)	27(100)	36(100)	27(100)	36(100)

세 탁: $X^2=20.5$; d.f.=2; $P<.001$

다림질: $X^2=33.4$; d.f.=2; $P<.001$

방청소: $X^2=8.98$; d.f.=2; $P<.05$

자녀가 가사노동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주부 가정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승미(1989)의 조사에서 자녀의 가사분담 정도는 가정기기의 사용정도가 가장 높은 전문직 주부의 가정에서 가장 낮았고, 가정기기의 사용정도가 낮은 비전문직 주부의 가정에서 가장 높았다. 취업주부 가정에서도 가정기기 보유는 자녀의 가사분담을 유도하지 않았다. 결국 가정기기는 자녀의 참여를 유도하였다기보다 자녀가 수행하였던 일이

주부에게로 전가되는 것을 도왔다고 볼 수 있다.

VII. 주부의 계층통합에 대한 효과

가정기기가 도입되기 전 주부들의 가사노동 수행과정은 계층에 따라 달랐다. 가정고용인을 둘 수 있었던 중상류층의 주부들은 다른 계층의 주부들보다 더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투입하였다. 1975년(윤복자) 조사에 의하면 가정고용인이 있는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은 평일 5.6시간, 가정고용인이 없는 경

우에는 11.6시간이었다. 김복옥·장명옥(1968)의 조사에서는 가정고용인이 있는 상류층의 부엌 작업시간은 1시간 32분이었던데 비해 가정고용인이 없는 중류층과 중하류층의 부엌 작업시간은 각각 4시간 31분, 3시간 51분이었다.

이러한 계층간 차이는 1970년대 전후로 가정고용인이 감소하고 가정기기가 출현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거의 모든 계층에서 유사해지는 작업조건은 가정고용인의 유무로 차별되었던 주부의 계층 차이가 통합되는 것을 의미했다. 계층간 통합은 중상류층에 대해서는 잡다한 단순작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류층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주부역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났다. 오늘날 주부의 가사노동의 내용을 보면 밥짓기, 찬만들기, 고급요리, 건강식 만들기, 세탁, 의류정리, 의복수선, 실내장식, 장보기, 청소, 난방관리까지 다양하다. 가정기기는 주부 일인이 모든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특히 가정고용인의 고용율이 높았던 중상층 주부를 단순노동자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하류층의 경우에는 60대 면접자의 경우 “먹고 살기 힘들어 가족을 돌볼 여유가 없었고 하인처럼 살았다”고 했지만, 30대의 한 하류층 주부는 평소 “가족을 돌볼 여유가 없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으며 자신을 가정부와 다름없다고 느껴본 적은 거의 없다”고 했다. 오늘날의 하류층은 과거의 하류층에 비해 자신을 노동자로서보다는 관리자로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가정기기의 보급 확대에 계층에 따른 차이는 통합되었지만 소비생활에 있어서의 계층차이는 결코 통합되지 않았다. 한국전력공사(1992)의 조사에 의하면 1993년 현재 세탁기의 전국 보급율은 91.0%이다. 그러나 당시 50만원 이하 저소득가계의 세탁기 보급율은 43%에 불과하고 4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계의 보급율은 102%에 이른다. 가전기기의 총보유대수도 가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9대인 반면 301만원 이상에서는 27.8대이다(한국전력공사, 1992). 최근의 고급화, 대형화, 고기능화에 의한 제품 차별은 계층의 분화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K사의 경우 2도어 냉장고의 가격은 용량과 기능에 따라 최고 1,980,000원에서 최

저 270,000원까지 차이가 난다(금성제품안내, 1994. 12.).

VIII. 결 론

지금까지 가정기기가 주부의 가사노동을 감소시키고 노동수행을 용이하게 해주는가 하는 효과를 검토해보았다. 그러나 가정기기의 효과는 기술결정론적 기대와는 달리 편익적이지만은 않았다. 가정기기의 도입은 새로운 가사노동을 창출하고 가족의 욕구를 증가시켜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가정기기는 새로운 피로요소와 새로운 불만족 요소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가정기기 보유도가 높은 영역에서 남편 및 자녀의 가사참여는 낮았고 소유의 양과 질의 차이는 주부의 계층을 또 다른 측면에서 분화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정기기의 도입에 대해 기술결정론적 사고에서 주부의 가사노동의 감소만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기기가 관련작업을 간소화시켜 주부의 노동조건을 편리하고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가정기기는 새로운 가사노동을 부가시키고 가사노동에 대한 가족의 요구를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게다가 가정기기는 부정적 효과로서 주부의 인간관계를 축소시키고 단조로움을 증가시키며 새로운 피로요소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가정기기가 가사노동 과정에서 주부의 편익만을 증가시킨다고 보는 것은 기기의 효과를 편협적으로 이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가정기기의 사용은 역할고정 관념, 사회계층, 손맛에 대한 지향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기기를 단순히 기술적인 도구로만 파악할 경우 가정기기는 효율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가정기기를 다른 사회적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사회체계의 일부로 볼 경우 효과는 단순하지 않다. 가정기기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보다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기기를 사회적인 산물로 보는 시각이 요구된다.

셋째, 가정기기는 가사공유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역할고정 관념으로 가족원의 가정기기 이용은 증가하지 않았다. 가정기기는 주부 일인에 의한 가사노동을 가능케하여 주부의 역할을 완화시키기보다 강화시켰다. 취업주부의 이중부담은 가정기기의 보유를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가족원 각자가 가정기기를 이용하는 생활주체가 될 때만이 해결가능하다.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 절약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가사노동 공유의 중요성이 본 연구에서 재강조된다.

【참고문헌】

- 1) 금성사(1994). 『금성제품안내』.
- 2) 김분옥 · 장명옥(1968). “우리나라 주부의 부업 관리”. 『대한가정학회지』 제6권:959-971.
- 3) 김선희(1989). “도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와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1호:111-126.
- 4) 김영란(1988). “가사노동에 관한 계급별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외숙(1981).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1”. 『대한가정학회지』 제9권 4호:55-64.
- 6) 문숙재 · 이재희(1983). “가정의 전기기기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 관리학회지』제1권 제2호: 43-57.
- 7) 문숙재 · 정지영(1991). “가사노동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와 그 만족 수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9권 3호:131-152.
- 8) 박인경 · 이정우(1986). “도시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과 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제4권 제2호:103-117.
- 9) 서창원 · 이기영(1984). “주부의 가사노동 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제9호:23-42.
- 10) 송혜림 · 이기영(1988). “남편의 가사노동 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 연구』 제13권:25-36.
- 11) 신경주(1982). “한국에 있어서의 가정청소의 실태와 전기청소기에 관한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제20권 3호:55-63.
- 12) 신경주(1985). “가사노동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한국생활과학연구』 3호: 385-423.
- 13) 안옥희 · 박인전(1993). “도시주부의 성역할 태도와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 의식이 가사노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4호:12-22.
- 14) 윤복자(1975). “가사노동 및 작업시간”. 『대한가정학회지』 제13권 2호:151-169.
- 15)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이기영 · 김외숙 · 서창원 · 이승미(1994). “도시 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1호:31-58.
- 17)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이용학(1985). “우리나라 취업주부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 이정우 · 이은주(1992).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관련변인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1호: 179-198.
- 20) 이정우 · 이정숙(1986). “도시가정의 소형전기기구의 구매와 사용관리에 관한 연구 - 전기밥솥, 전기프라이팬, 토우스터, 블렌더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24권 2호:93-112.
- 21) 이정우 · 최보가 · 최명숙(1987).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추정”. 『대한가정학회지』 제25권 4호:99-111.
- 22) 임정빈(1981).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2호:73-87.
- 23) 임정빈 · 임혜경(1992). “1980년과 1990년 도시주부의 생활시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4호:261-278.
- 24) 정연주 · 문숙재(1987). “도시가정의 가사노동 사

- 회화에 관한 연구-식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5권 1호:121-143.
- 25) 정영금(1989). “가정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6) _____ (1993). “가정노동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1권 3호:75-88.
- 27) 조성근·문숙재(1991).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제1호:95-112.
- 28) 조순(1977). 『경제학원론』. 법문사.
- 29) 지순·윤복자·정상진(1987). “주택특성변인 및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관과 소진 상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제1집:75-84.
- 30) 최덕경·이정우(1993). “가정관리행동시 주부의 스트레스와 관련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96-110.
- 32) 통계청(1970, 1975, 1990).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 32) _____ (1993). 『한국의 사회지표』.
- 33) 한국섬유산업연합회(1990). 『섬유공업통계』.
- 34) 한국여성개발원(1994).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 35) 한국전력공사(1990, 1992, 1994). 『가전기기 보급율 조사연구』.
- 36) Bell, Danial(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Harper & Row.
- 37) Blauner, R (1964). *Alienation and Free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38) Bose,Christine E., Philip L.Bereno, and Mary Malloy(1984). “Household Technology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Housework”. *Technology and Culture* 25(1):53-83.
- 39) Bryant, W. Keith (1986). “Technical Change and the Family; An Initial Foray”. PP.117-126 in *Human Resources Research 1887-1987 Proceedings*. Iowa State Univ.
- 40) Cowan, R. Schwartz (1983). *More Work for Mother: The Ironies of Household Technology from the Open Hearth to the Microwave*. New York:Basic Books.
- 41) Foster, Ann C. Mohamed Abdel-Ghany, and Carl E. Ferguson (1981). “Wife’s Employment-Its Influence on Major Family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5 (June):115-124.
- 42) Galtung, Johan (1967). *Theory and Methods of Social Research*. London: Allen and Unwin.
- 43) Hall, Folrened Turnbull, and Marguerite Paulsen Schroeder (1970). “Effects of Family and Housing Charateristics on Time Spent ON household Tasks”. *Journal of ahaome Economics* 62(1): 23-29.
- 44) Nickols, Sharon Y., and Karen D. Fox (1983). “Buying Time and Saving Time: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Produ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9):197-208.
- 45) Oakley, Ann (1974). *The Sociology of Housework*. New York: Pantheon Books.
- 46) Reilly, Michael D.(1982). “Working Wives and Convenienc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3):407-418.
- 47) Robinson, John P. (1980). “Housework Technology and Household Work”. pp.53-68 in *Women and Household Labor*. edited by Sarah F.Berk. Sage Yearbooks in Women’s Policy Studies vol. 5. Sage Publications.
- 48) Schneider, Helmuth 외 (1982). 『노동의 역사』. 한정숙 역. 한길사.
- 49) Strober, Myra H., and Charles B. Wenberg (1977). “Working Wives and Major Family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141-147.
- 50) Swartz, Verona W. (1933). *The Human Energy Cost of Certain Household Tasks*. Washington: State Agriculture Experiment Station, Bulletin 282.
- 51) Thrall, Charles A. (1982). “The Conservative Use

- of Modern Household Technology". *Technology and Culture* 23(2):174-194.
- 52) Vanek, Joann (1974). "Time Spent in Housework". *Scientific American* 231(11):116-120.
- 53) _____ (1978). "Household Technology and Social Status; Rising Living Standards and Status and Residence Differences in Housework". *Technology and Culture* 19(3):361-375.
- 54) Walker, C.R., and R.H.Guest (1952). *Workers' Attitudes and Techn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